

4. 主要 經濟 懸案

(1) 不渡 擴散과 金融 不安

- (현황) 금년에 들어서 기업의 부도가 크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원인) 부도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산업의 구조 조정 지연에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금융 비용 부담 증가에 있음
- (영향) 부도 기업의 확산은 금융 기관의 부실화와 금융 시장의 경색을 불러 올 것임
- (대책) 정부는 금융권에 대한 한은 특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금융 기관의 책임있는 경영 체제를 유도하여 금융 구조의 안정을 유도하여야 함

1) 부도 확산 추세와 원인

금년에 들어서  
기업 부도 확  
산

- (부도 현황) 금년에 들어서 기업의 부도 혹은 부도 유예 사태가 확산되고 있음
  - 특히 한보, 삼미, 진로, 대농, 한신 공영, 기아 등 대기업 그룹의 부도 혹은 부도 유예가 늘어나면서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로 이어지고 있음
  - 대기업이 부도날 경우 1차, 2차 협력업체들의 부도 초래
  - 이에 따라 금년에 들어서 전국 어음 부도율은 증가세를 지속하여 7월중 0.22%를 기록함(96년말 0.16%)

<표> 최근 부도 기업 현황과 부도 규모(억 원) 현황

(단위:억 원)

그룹	기준일	금융 기관 여신		비고
		제1금융권	제2금융권	
한보	1.23	42,733	15,153	부도
삼미 특수강	3.18	9,524	5,174	부도
진로	4.21	12,022	17,902	부도 유예(3개월)
대농	5.19	6,027	7,960	부도 유예(3개월)
한신 공영	5.30	7,278	4,504	부도
기아	7.15	54,845	45,210	부도 유예(2개월)

자료: 해당 그룹별 주거래 은행 발표

- (원인) 부도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산업의 구조 조정 지연에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 증가에 있음

부도 확산의  
근본 원인은  
국내 산업의  
구조 조정 지  
연이며, 단기적  
으로는 경기  
침체와 금융  
비용 부담 증  
가임

-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고부가 가치형 산업화는 지체되고 있음
- 국내 산업의 가격 경쟁력 우위에 의한 경쟁력은 경제 개방과 후발국의 추격에 의해 급격히 쇠퇴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기존 영위 업종의 수익성 악화와 새로운 사업 분야로의 투자 확대로 전체적인 수익 구조가 악화됨
-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의한 매출이 부진한데다가 과도한 금융 비용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된 것이 부도의 원인임

## 2) 영향

금융 기관의  
부실화와 금융  
시장의 경색  
우려

- (금융 시장 불안 가중) 부도 기업의 확산은 금융 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금융 시장의 경색을 불러올 것임
-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부도 혹은 부도 유예 조치는 금융 기관의 부실 채권 증가와 이자 손실을 확대시키고 있음
  - 특히 4월 부도 방지 협약 발효 이후 부도 방지 협약 적용에 따른 은행의 채권 유예 규모는 총 7조 1,894억 원에 달함
  - 이는 96년말 은행의 부실 여신 2조 4,000억 원의 약 3배이며, 이로 인한 은행의 이자 손실은 연간 8,000억 원으로 알려짐
- 이러한 금융 기관의 부실은 금융 시장의 불안에 의한 금융 위기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음
  - 금융 위기는 대기업의 부도 → 신용 경색(credit crunch) 및 금융 지표의 불안정 → 자금 흐름상의 왜곡으로 중견 기업의 연쇄 부도 발생 → 부실 채권 누적에 의한 금융 기관 파산 → 국내외 신용의 추가 경색 → 극심한 경기 침체의 과정을 겪는 것임
  - 금융 위기는 거시 경제 여건의 불안정, 금융 산업의 발전 정도, 금융 자유화의 추진에 따른 위험 노출도 증가 등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를수 있음

국내 거시 경제의 불안정, 금융 구조의 낙후로 본격적인 금융 위기로의 발전 가능성 내포

- (평가) 현재 국내 금융 시장의 상태는 대기업의 부도에 의해 신용 경색이 발생하는 초기 단계이나 거시 경제의 불안정, 금융의 구조적 낙후 등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격적인 금융 위기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음
  - 국내 경제는 물가 상승률, 성장률 등 거시 변수가 안정성이 아직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한 상태로 평가됨
  - 금융 기관은 책임 경영 체제가 정착되지 못하여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금융 자유화로 인한 금리, 환율 등의 변동성 증가는 금융 기관 경영을 위협하고 있음

2) 대책

금융 시장을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권 지원, 금융 기관의 책임 경영 체제 구축 등이 필요

- 부도 확산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됨
  - (금융권 지원) 정부는 한은 특용을 통한 금융권 지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
  - 금융 기관의 부실화 및 이로인한 시장 경색은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투자 위축에 의해 급격한 경기 침체마저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 (금융 기관의 책임 경영 체제 구축) 중장기적으로 은행에 대한 기업의 소유를 허용하여 경영주에 의한 책임있는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부실 금융 기관 정리에 대비) 부실 금융 기관의 정리가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예금 보험 제도의 내실화, 부실 금융 기관 정리 기구의 일원화 등이 이루어져야 함
  - (M&A 활성화) 부실 기업의 정리가 기업간 인수 합병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국내 금융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M&A에 대해 세제 감면 허용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함

(손 영 기)